

〈사도 바울의 신앙〉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5/13(주일) 설교 내용

빌립보서 3:10-14

1.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생긴 목표가 두개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그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두가지 목표는,

①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분명해 집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 행동하게 됩니다.

②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성품과 나와 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정립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위의 두가지 목표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는지, 또 만났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편한 사람인가요?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은 까다롭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순종'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담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용하기에 꺼끄러운 사람입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부탁하기에 부담이 없고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쓰이고 부탁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일까요?

3. 모든 사람에게는 달려가야 할 '퓏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가고 있는 '퓏대'는 어디입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달려가고 있는 '목표', '퓏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 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